

메기매운탕을 끓이며

이광구

부지런한 농부들은 벌써 논물을 다 뺐다. 하지만 아는 사람들 여럿이 함께 짓는 논들엔 아직도 물이 많다. 물꼬를 내놓긴 했지만, 논바닥이 평평하지 않은 탓인지 논바닥에 여전히 물이 흥건하다. 오늘은 경구씨와 함께 논두렁 풀도 베고, 물꼬도 확실히 내주기로 했다.

“이러다 잘못하면 손으로 베야 해.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끔직해.”

같이 짓는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가장 일을 많이 한 경구씨는 행여 콤바인이 눈에 못 들어올까 봐 여간 걱정이 아니다.

먼저 논 사이에 있는 수렁 독을 텃다. 그리고 물길 근처를 삼으로 파 주었다. 갑자기 제법 큰 물고기가 물꼬를 타고 아래 논길로 내려간다.

“메기야 메기. 잡어, 잡어!”

물이 얁아서인지 어렵지 않게 잡았다. 내 손으로 메기를 잡아보긴 난생 처음이다. 위에 있는 선배의 눈에서 흘러내려온 우렁도 한 스무 마리 잡았다. 당연히 붕어도 몇 마리 잡았다. 참 재밌다.

해질 녘까지 허리가 아프도록 벼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물길을 내 주었다. 경구씨네 집에서 두 가족이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다. 다들 바쁘다. 모처럼 내가 칼을 쥐었다. 마당에서 따온 애호박을 자르는데, 순간 20년 전 선배가 가르쳐 준 칼질하는 법이 생각나는 건 왜일까? 그 때, 모꼬지에서 선배는 감자찌개를 끓이며 요리 순서와 칼질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나리엄마, 칼질할 때 손가락 이렇게 구부리고 해야 베지 않는다는 거 알아?”

“알아, 당연히 알지.”

또 잔소리나는 듯이 투명스럽게 받는다. 그 때 난 운동을 배우며 이런 생활수칙도 함께 배웠다. 씨클 모임방으로 쓸 겸 자취를 하던 우리, 넉넉하게 밥을 사먹을 수 없던 그 시절 형편에선, 요리도 꼭 배워야 하는 중요한 일이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된다.

감자찌개와 칼질

우리와 거래하는 모 포털사이트회사 담당자는 우리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이트의 배너가 너무 튀다고 고치자고 했다.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협의해 수정안을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막 퇴근하려는데, 영업 직원의 항의 전화가 왔다.

“중개업소에서 항의 전화가 왔어요. 아니, 그렇게 맘대로 배너를 바꿔버리면 어떡해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닌데 그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시안을 올려버린 것 같다고 김과장은 생각했다. 담당자가 퇴근한 뒤라 과장이 영업팀장과 협의하고, 전산팀에 확인하고, 그 회사 쪽에 마지막 확인을 해봤다.

“그 회사에서 그런 게 아니고, 이대리가 전산팀에 얘기한 게 잘못 전달된 모양입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마디 해주었다.

“뭘야 이거! 초등학교 과정으로 다시 가야겠군.”

평소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던 터라, 과장들은 내가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를 안다.

어릴 때 했던 놀이 얘기를 여러 번 해주었다. 한 줄로 길게 늘어서, 맨 앞사람이 뒷사람에게 귓속말로 말을 전한 것이 차례로 가서 맨 끝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확인하는 놀이다. 이런 놀이는 생활의 기본을 가르치는 정말 훌륭한 놀이요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니, 초등학교 저학년 때 통지표엔 말하기, 듣기, 쓰기 등의 평가항목이 있었다는 생각이 난다. 이런 것이야말로 살아가면서, 특히 어릴 때 배워야 할 가장 소중한 것들이 아닐까?

어릴 때 배워야 할 가장 소중한 것들

간밤에 술을 많이 먹고 늦게 잤는데도 어김없이 다섯시 반에 일어났다. 눈에서 일한 것 때문에 허리가 빠근했다. 그래도 상쾌하다. 아침을 먹고, 오리들한테 물을 길어다주고, 잘 익은 대추를 한 주먹 따다.

논길 사이로 난 길을 달리며 대추를 씹었다. 참 달다. 단 대추를 먹을 때마다 어릴 적 어머니 말씀이 생각난다.

“상탁리 손영감은 읍까지 십리 길을 대추 하나 씹으며 다녔단다.”

근검절약을 강조하실 때마다 늘 등장하던 어머니 단골 메뉴다. 마당극에서 사장이 지루하게 생산성을 강조할라치면 “한 번만 더 들으면 만 번이다, 만 번” 하던 대목이 생각나지만, 어머니의 만 번째(?) 얘기는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어머니 말씀은 이것에 그치지 않는다.

“빛자루 끝을 들면 먼지가 나잖아. 이렇게 끝을 들지 말아야 한다.”

“기름 묻은 그릇과 깨끗한 그릇은 따로 분리해서 설거지해야 물도 아끼고 힘도 안 든다.”

학교 선생님 말씀도 주의 깊게 들었다. 밥 먹을 때 서른 번씩 씹어야 한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실천하는 학생이었다.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정리정돈’ 이라고 기억된다. 어머니와 선생님들의 이런 자잘한 교훈들은 내 학습능력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된다.

$ax=b$, 학문은 기초 원리를 쌓는 일부터

경쟁 회사엔 박사들이 여러 명 있다. 이 업계 경험도 많다. 그런데 우리 회사엔 박사도 한 명 없고, 업계 경험도 짧다. 하지만 우리 회사 상층부 인사들은 실전 경험이 많다. 그래도 온라인 사업에 있어서는 학문적인 접근 태도가 많이 필요하다. 직원들도 경쟁 회사에 비해 우리 사이트가 정리정돈이 덜 됐다고 느끼는 것 같았다. 그리고 썩 자신 있어 하지도 않는 모습이다.

아침 모임 때 칠판에 수학 문제를 하나 적었다. $ax=b$ 를 풀어라. $x=b/a$ 라고들 한다. 수학과 출신이 몇 명 있지만, 내가 원하는 답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날 고등학생을 많이 가르쳐 봤지만 이 문제를 정확히 푼 학생은 단 한 명뿐이었다.

“먼저 x에 관한 방정식이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문제를 푸는 원리는 초등학교 3~4학년 때 배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는 지극히 단순한 진리다.

“단 0으로 나누는 것은 제외한다는 거 기억나는지요?”

학문이란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란 점을 설명하고 싶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작은 진리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고, 그걸 분류하는 것이 학문의 기초란 걸 느끼게 하고 싶었다. 회사 일도 마찬가지다. 급하게 일만 벌여놓을 게 아니라, 차분히 정리정돈 해나갈 때 좋은 내용이 되고,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란 걸 말해주고 싶었다.

여름에도 벙어리 장갑을 끼던 아픔

차가 부천 중동대로에 접어들 무렵, 라디오에선 오래된 젊은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노래라며 이문세의 노래를 틀어준다. 그 프로의 구성 작가가 학교 80학번 선배니까 결국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하며 말하는 것이라.

십오륙 년 전, 교도소에서 갓 나온 난 처음으로 구로동 작은 공장에 들어갔다. 대우 르망 부품을 찍어내던 그 공장에서 만난 동생과 자취를 하게 됐다. 그 동생은 그 몇 해 전에 프레스에 오른쪽 손가락 네 개를 잃은 뒤였다. 그리고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동생이 역시 프레스에 손가락을 잃었다.

어느 날 같이 버스를 탔는데, 겨울이 아닌데도 벙어리장갑을 끼고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 처음엔 너무나 의아해 대답이 궁한 그들에게 자꾸 똑같은 질문만 해대고 말았다. 산재에 관한 책을 보고, 변호사를 만나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도 가보고 하면서 동생들은 세상을 배웠다. 반 년이 지날 즈음에서야 동생들은 장갑을 벗고, 당당히 손가락이 뭉개진 주먹을 내밀게 됐다.

그 즈음 어느 날 주말에 우리는 선배들과 함께 경기 남부지역의 한 농촌에 놀러갔다. 멀리 나지막한 산들이 둘러쳐 있고, 벼가 익어 가는 들판의 비포장 도로를 아무 말 없이 걷고 있었다.

“형, 전에는 저 산과 들판이 이렇게 정감 있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 삶에 자신이 생기면 외부 사물도 이렇게 달리 보인다는 점을 그때 깊이 깨달았다. 십오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은 내 가슴속에 여전히 울리고 있다.

조금 말을 더듬어 모자라 보였던 동생, 구로동 예수란 별명을 가졌던 친구, 잡기에 능했던 경상도 녀석, 말수가 적고 얇은 웃음을 짓곤 하던 녀석…….

자살한 동생도 있고, 아직도 원양어선을 타고 있는 동생도 있다. 마흔이 넘은 노총각도 있다. 장터를 돌아다니며 과일장사를 하는 동생이 있는가 하면, 카센터를 찾아다니며 중고부품을 파는 동생도 있다.

그땐 우리도 당당한 세상의 주인이었는데, 지금은 다들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

이광구 narion@ten.co.kr | 구로에서 노동운동·노동자협동기업 시도하다 실패. 현재는 부동산회사인 텐커뮤니티에 근무. 강화도 농촌에 거주하며 환경농업과 교육에 관여.